

하나님의 말씀

아담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158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3
7911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	6
7469 깊은 곳으로 끝 없이 긴 타락. 귀환의 길.....	7
8943 인간은 창조주의 권세로 우연히 지음 받은 것이 아니다.....	9
6344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창조물들.....	10
7571 혼의 성장. 원래의 영.....	11
6599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력 있는 혼을 불어넣었다.....	13
5802 아담. 원래 초기의 영. 루시퍼의 시도. 형체를 파괴한 일.....	14
7463 누가 아담 안에 육신을 입었는가?.....	18
7465 누가 아담 안에서 육신을 입었는가? 2.....	19
8236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인간인가?.....	21
8237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인간인가? 계시 번호 8236 에서 계속.....	23
9006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가?.....	24
8675 질문: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5
697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원죄. 아담의 타락. 구원 역사.....	27
8397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영의 상태. 책 중의 책.....	29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B.D. No. 7158

1958 년 7 월 3 일

영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종류의 창조물을 가진 모든 우주
의 창조물들이 생성 된 원인이었다. 이런 창조물이 생성되기 전에는 단지 영의 나라 만
이 있었다. 이 나라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된 세계였다. 이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능력과 빛을 소유 한 가운데 그들이 정함 받은 대로 창조할 수 있었다.

이런 창조는 영적인 창조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재에게 흘러가는 생각과 아이
디어를 실제화 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이 제공되고 그들이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측량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의 축복된 상태가 절대로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들 내면에서 그들의 창조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로써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사랑의 빛의 비추임을 충만하게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제한이나 빛이 줄어드
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상태가 되었다.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이고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에 의해 그들이 영원한 신성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루시퍼가 자신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생성되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받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존재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창조한 분에게 향했다. 그러나 루시퍼의 설명이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 설명이 그들에게 더 믿을 만하게 보였다. 왜냐면 루시퍼는 빛과 광채를 발산했고 그들이 루시퍼 위에 있는 존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아직 깨달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그들은 루시퍼의 설명을 의심으로 대항했다. 이제 빛이 충만한 순간이 작은 흐릿한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존재가 흐릿한 상태에 빠질수록 어두워진 생각의 상태가 더 지속되었다. 그러나 또는 존재가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빛이 충만하게 자신의 진정한 출처를 깨달았다. 루시퍼는 이런 존재들의 깨달음을 더 이상 흐릿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두워진 상태가 더 지속 된 존재들은 루시퍼의 권세 아래 들어 갔다. 그들은 루시퍼에게 속하고 루시퍼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겼다. 왜냐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전에 항상 또 다시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 충만한 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래 초기의 줄어들지 않은 루시퍼의 능력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축복된 영의 존재들을 창조했다.

이런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로 인해 그 안에 잘못 된 자기 의식이 자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을 얻은 원천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준 능력의 증거만을 보았다. 비록 그가 이 능력이 자신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한 분에게 속하였음을 알았을 지라도 능력을 단지 자신을 위해 소유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소유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출처를 계시해주는 이 존재들 안의 빛을 흐리게 했다. 이로써 루시퍼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결정하고 이로써 빛의 전달자로서 존재들이 그들의 능력과 빛을 잃고 어둠에 빠지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축복이 줄어들게 하고 자신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과정이 영적인 종류와 물질적인 종류의 끝없는 창조물들이 생성 된 원인이었다. (1958년 7월 3일) 이런 창조물들은 단지 형태를 변화시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타락을 통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진 일을 통해 존재의 성분이 더욱 타락할 수록 항상 더 굳어지게 되었다.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항상 활발하게 일하게 하는 영의 능력이 영적인 존재들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로써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되었고 생명이 굳어졌다. 남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굳어진 성분이었다. 비록 이 성분이 원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산 된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효과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원래 영적인 존재들에게 다른 사용 목적을 부여했다. 즉 쉬지 않고 그러나 동시의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의 의지가 되어 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이 정함 받은 일과 반대로 행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시 전적으로 굳어진 자신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된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입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영적인 존재들에게 개입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입자들을 분리해 이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창조의 작품들이 생성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동시에 한때 자신으로부터 발산 된 능력을 변형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창조의 작품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이제 의무의 상태에서 성취하게 하여 분해 된 영적인 입자들이 이제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나 영의 존재로서 전에 소유했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원래 초기에 하나님이 존재로 생성되게 했고 단지 온전함의 측면에서 그의 온전함이 전적으로 바뀐 상태이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창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단지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발산한다.

그러나 이는 다시 단지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 그들의 제한이 없는 능력에서 나온 영적인 작품들이다. 이 세계는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거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곳에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제한이나 어떠한 무능력도 없다. 이런 부족함과 제한과 무능력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걸형체 안에서 일하게 강요받는 걸형체가 필요할 때 나타났고 우주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담을 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묶임을 받고 있다. 형체가 굳을수록 그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더욱 강박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

그러나 형체 자체인 물질도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를 담은 그릇으로 그가 성장하게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모든 이런 영적인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영적인 입자들이 저항을 강제로 겪게 강요하며 영적인 입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실제 창조의 작품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특정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원래의 존재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의 작품을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어두움의 주인에게 다시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단계 하에 항상 행하는 일이 대부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줄어줄게 한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미 자신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일을 통해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 그의 원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영의 나라에서 한 때 이뤄진 타락의 결과이다.

별들의 세계는 영원에 걸쳐서 존재할 것이다.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열어주게 위해 새로운 창조물들이 항상 생성될 것이다. 귀환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까지 마

지막 강박한 영적인 존재들이 분해되고 귀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영원히 영원한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이런 창조물들이 영화되는 일이 끝날 것이다.

언젠가 다시 단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하며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영의 세계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녀들을 자신의 주변에 갖게 되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만들려고 재촉하고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을 쉬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

B.D. No. 7911

1961년 6월 5일

나는 모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쉬지 않고 빛과 능력 가운데 일하는 상태였다. 왜냐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인 내 사랑의 힘이 한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실존하는 존재들에게 흘러 갔기 때문이고 이 능력은 이제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계속하여 창조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방식에 대해 너희에게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아직 제한된 생각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했고 이런 일이 생명을 증명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났을 때 그들이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서서히 일하지 않는 상태에 빠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에서 죽음에 도달했다. 그들의 성분이 굳어졌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착이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축복된다고 할 수 없게 됐다.

한때 내 피조물로서 나로부터 전적으로 온전하게 생성되어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런 죽음의 상태 가운데 처했다. 이런 존재들은 빛과 능력 가운데 제한이 없이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치게 축복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대적했을 때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부했을 때 마찬가지로 나를 떠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에 갔을 때 그들의 온전함을 잃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죽음에 도달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영원히 이 상태에 두지 않는다. 나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려고 시도한다.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다시 생명의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언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러나 귀환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존재가 스스로 정한다. 왜냐면 나는 모든 존재들이 신적인 특징으로 소유한 귀환의 과정의 방식과 기간을 정하는 자유의지 한가지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너희 주변에 보는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이런 귀환과정을 위해 단지 생성된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과 지혜가 성공할 것으로 깨달은 대로 내 권세가 실행하는 구원 계획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나는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원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굳어진 것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서서히 다시 일하게 허용 받아야만 한다. 나 자신이 이 일을 정한다. 왜냐면 내가 나를 대적하는 의지를 성장 과정의 어느 기간 동안 묶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서히 다시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의무 상태에서 다시 말해 존재가 자유의지가 없이 그러나 그는 끝 없이 긴 성장기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다시 확실하게 자유의지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 내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 이런 성장 과정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창조의 작품의 생명이 각각의 혼의 입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혼의 입자들은 한때 타락한 존재들에게 속해 있는 죽은 상태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분해되어 이제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창조물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행한다.

너희 사람들은 창조물이 근원적으로 무엇인지 단지 작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창조물이 임의 대로 의미와 목적이 없이 생성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깨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한때 나를 떠난 존재는 내가 내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내가 행복하게 해주었고 나도 이 가운데 내 행복을 찾기 원했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내 사랑의 피조물들이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만든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나게 되길 원한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한때 나에 의해 창조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죽은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노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내 사랑의 역사를 자신에 적용해 완성시켜야만 한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멀리한 것처럼 그들은 자유의지로 나를 다시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생명의 상태를 선택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의 마지막 완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지가 정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실패하면, 존재는 스스로 실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기간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확실하게 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때 자유로운 생명으로 빛과 능력 가운데 내 사랑으로 생성한 어떤 존재도 죽음의 상태에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깊은 곳으로 끝 없이 긴 타락. 귀환의 길.

B.D. No. 7469

1959년 12월 2일

귀환의 역사는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따라 진행 된다. 한 단계가 지난 후에 다른 단계가 진행돼야만 한다. 한 단계를 임의대로 건너 뛸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영원한 질서에 따라 진행 된다. 귀환은 한때 나를 떠나는 타락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진행 된다. 단지 이런 타락

은 끝없는 공허를 준 반면에 귀환은 모든 종류의 창조의 작품을 거치는 가운데 성장이 보장이 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왜냐면 내 지혜와 내 사랑이 이런 방식을 좋은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귀환이 이루기까지 타락한 존재가 인간으로써 마지막 완성을 위한 과정을 다시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살게 되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은 너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긴 기간이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량하면, 더 긴 시간이 걸렸다.

당시에는 아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게 무한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항상 나로부터 멀어짐으로 커진 간격을 통해 황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랑의 힘이 부족함이 존재에게 그가 전에 알지 못하던 공허와 황량함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깨달음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혼돈되었다. 존재들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존재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의 입자가 굳어져 모든 생명의 능력이 그로부터 사라지기까지 항상 더욱 어두워졌다. 이때 비로소 내가 그들을 도왔다. 이때 비로소 내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들로부터 창조물이 생성되게 했다.

즉 그들의 영적인 입자가 굳어졌고 그러므로 내가 이 입자들을 서로 다른 종류의 창조물로 바꾸어 형성시켰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내가 한때 존재로 발산시킨 능력이었고 내가 이제 존재들이 내 뜻대로 섬기게 하는 목적을 위해 변형시킨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한때 지배하길 원했고 이런 죄를 통해 가장 깊은 곳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존재는 비록 묶여진 의지의 상태에서 그러나 끝 없이 깊은 곳으로 타락한 길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섬김을 통해 위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존재는 의무단계에서 섬김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도달하여 존재가 다시 이제는 자유의지로 내 강요받지 않고 섬기는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존재는 비로소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가 자기 자신이 동인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면, 존재가 비로소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한 것이 된다.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거쳐야만 하는 길은 끝 없이 긴 길이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미리 정해주었다. 비록 인간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은 피할 수 없다. 이 시험은 자유의지로 치러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한 내 구원계획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헛되게 가지 않게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자유의지로 행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의 길이 성공하려면, 그가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끝에 가서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그는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섬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만약에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된 것으로 믿는다고 할 경우, 그는 처음부터 이런 상태의 인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된 것으로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주는 모든 사랑과 지혜가 없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단지 스스로 부족한 존재의 작품이 된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한 그를 절대로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도무지 품는 사람은 아무런 빛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창조주에 대한 거짓된 개념을 만든 것이다. 왜냐면 인간으로서 존재는 단지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의 한 단계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인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한때 창조되었을 당시처럼 그의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이제 마지막 의지의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부터 창조 되었고 마찬가지로 최고로 온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현재에 처한 너희 스스로 만들어 낸 상태는 영원하신 창조주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이것이 단지 너희 스스로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만드러낸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의 의지가 준비가 되었으면, 너희는 너희를 원래 상태로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실수에 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실수를 덕성으로 바꾸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의 관계에서 전적인 변화를 이루어 그의 가까이에 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한때 너희가 그로부터 창조되어 나올 당시 너희의 원래의 상태에 가까이 되게 만들어야만 한다.

너희는 절대로 인간으로서 존재를 종료 된 삶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이전"이 있었고 „이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인간으로 존재 하면서 너희를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지 또는 다시 너희가 이미 오래 전에 극복했던 과정으로 돌아 갈지를 결정해야만 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창조주의 권세로 우연히 지음 받은 것이라고 믿지 말라. 제멋대로 자신으로부터 크거나 또는 적은 여러 종류의 실수들과 죄악들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고 믿지 말라.

너희를 단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창조주에게 최고로 완성 된 사랑과 지혜를 가진 분으로 인정해드려야 함을 믿으라. 이 목적은 자기 자신을 즉 그의 사랑을 창조한 존재에게 비추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존재들 스스로 이를 막았었다. 그들이 이 사랑을 거절했고 이로써 자신을 반대되는 존재를 만든 것이다. 이제 이 존재가 바로 너희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시 전의 성품에 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너희의 이 땅의 시간을 단지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겨라. 이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너희가 너희의 원래 상태로 돌아 가기 위한 시간으로 여겨라. 너희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최고로 온전하게 창조 된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너희의

영원하신 창조주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부덕한 것과 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함을 알아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런 변화를 성공시키면, 너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 이로써 너희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사랑의 비추임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너희는 끝 없이 축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되는 것만이 너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당시처럼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창조물들.

B.D. No. 6344

1955년 9월 1일

너희가 주변에 보는 어떤 것도 생명이 없는 것은 없다.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안에는 한때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입자로 분해되어 자신을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의식을 잃어버린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 있다. 이 입자들이 자기의식이 없이 피조물들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어 다시 창조되었을 때의 원래의 영이 되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다. 다시 말해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다시 얻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적인 껍데기 안에 살고 있는 영계가 창조되었을 때 창조된 영이다. 딱딱한 광물에서부터 짐승에 이르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찬가지로 원래의 영에 속한 영의 입자에 의해 생명이 유지된다. 그렇더라도 한때 나를 떠난 일로 인해 영의 입자가 자신을 존재로 인식하는 인식을 잃었기 때문에 영의 입자는 자기 자신을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

모든 창조물은 이런 영적 입자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원래 창조한 존재들은 나와 함께 나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러나 물질적인 창조는 영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안에 묶여 있는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일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질적인 창조가 이뤄졌다. 나에게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나로부터 발출된 힘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생명이 없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존재들은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존재는 항상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낼 것이고 존재는 일을 한다. 실제 작은 일이어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 대로 머무는 것이 없고 항상 변화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행하는 일이 더욱 분명하게 들어날수록 창조의 작품의 생명을 더욱 깨닫게 된다. 단지 자기 의식이 없는 것이 너희 사람들 주변의 것들의 실체를 너희가 의심하게 만든다. 존재가 자기의식을 다시 부여받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된다. 비록 인간이건 다른 피조물들이건 생명을 유지하는 입자들은 전에 내 능력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똑 같다.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은 물질로써 생명을 나타내 주는 것은 이미 내 능력이 아주 큰 크기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물질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 나로부터 나온 힘이고 나와 같이 실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부터 나온 존재들에게 온전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로 이루어진 각각의 존재가 행하는 일을 정한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섬기는 최소한의 일이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점점 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생명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 왜냐면 모든 존재가 이제 자신을 의식하는 각각의 존재로서 나로부터 그에게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는 힘을 내 뜻 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원래 초기에 창조되었던 것처럼 다시 온전하게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성장. 원래의 영.

B.D. No. 7571

1960년 4월 7일

 든 성장시대 동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해 나간다. 영적인 존재들이 한 구원시대 안에 창조물의 과정을 통과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정도로 성장하여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굳어진 혼의 입자들이 영화되기 위해 이런 여러 구원시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입자들의 저항이 아주 커, 위로 성장하는 일이 단지 서서히 일어나면 발생한다. 그러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영적인 존재가 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왜냐면 인간의 단계에서 시험을 받아야 할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에는 이런 자유의지가 묶임을 받고 있었다.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자들은 자유의지로 행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의무단계 이래서 간다. 그들은 창조물 안의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과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의무단계 아래서 이 과제를 성취시키는 일을 통해 그들은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한다.

다시 말해 저항이 줄어든다. 그들은 정해진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서서히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성장 과정은 계속하여 곁형체가 바뀌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서서히 이뤄지는 성장이다. 이는 비록 어느 정도 강요가운데 일어나지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로써 존재가 나아지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를 언젠가 자유롭게 해주어 그가 다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생각하고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으로 인해 그로부터 끝 없이 멀어지게 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면,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은 피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 안으로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파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적자로부터 영적인 존재들을 빼앗지 않았으면,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큰 간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대적자도 그가 귀환하게 절대로 자유롭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도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깊은 곳까지 대적자를 따라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존재들이 그의 능력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

적자의 권세로부터 존재들을 자유롭게 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나 반면에 존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되면, 영적인 존재에게 다시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적자에게 주어진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주인을 자유롭게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줄 성장 정도에 다시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갑작스럽게 이런 상태에서 도달하게 될 수 없다. 높은 곳을 향하는 과정은 그가 깊은 곳으로 갔을 때와 같이 단계 단계 올라가야 한다. 저항을 서서히 포기해야만 한다.

그의 저항을 강제로 꺾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광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에 이르는 셀 수 없이 많은 형체가 필요하다. 곁형체를 바꿀 때마다 저항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존재가 의무단계에서 자신에게 항상 가벼워 지는 형체를 입게 해주는 섬기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간격도 측량할 수 없이 큰 간격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형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다시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을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마지막 형체를 벗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자유로운 의지결정만이 필요하다. 이 땅의 창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성장 과정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 싸움이다.

존재는 형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곁형체를 묶임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그가 어떤 성장 정도에 도달했는지에 상관 없이 형체를 벗게 되는 일을 행복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지만 모든 짐승들은 자신의 곁형체를 바꾸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가벼워지는 것으로 느끼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약한자가 강 자에게 먹히는 일이 강한자가 약한자의 생명을 마치게 하는 일이 이를 통해 존재들이 계속 성장해나가게 돕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허용되는 일이고 원하는 일이다. 존재가 의무단계 아래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새로운 형체를 입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존재가 이 땅의 인간의 단계에 도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 받으면, 하나님의 의지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길 원하면, 자신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그에게 법이 주어진다. 그는 한때 자연의 법칙 아래 묶임을 받았었고 이 때에는 그가 성장 과정을 지속해 마치길 원하면, 복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목표가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자유로운 영으로써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존재가 한때 자신의 출처인 아버지의 집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너희 혼을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너희는 실제 한때 신적이고 온전한 존재였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로 이런 온전함을 버렸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현재처럼 온전하지 못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또한 내가 실제 인간 형체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이런 인간 형체가 살아 있게 하는 혼은 이미 완전히 잘못 된 상태에서 변화되어 인간의 형체 안에 거하게 되고 이로써 다시 완전히 신적인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이제 너희가 인간으로서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너희에게 요구하기 위해 너희를 온전하지 못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 사람들은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단지 육체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비록 너희가 더 나은 인류가 되기 위해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도덕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추구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생명력을 단지 육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개개인의 영적인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자신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인간으로 존재하는 일은 단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이를 통해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는 가르침은 인간의 존재를 한때 온전하지 못하게 된 혼을 위한 제한된 단계로 간주한다면 비로소 올바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르침에서 잘못된 된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 혼을 사람 안에 넣어주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최고로 온전한 내 성품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그들이 점점 더 세속적이 되어 간다. 왜냐면 그들이 잘못된 된 개념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제 나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섬김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 또한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창조하는 힘을 온전하지 못한 창조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존재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할 수 없다. 한때 온전한 존재가 오만함으로 통치하기 원하고 이로써 사랑의 원칙을 거부하고 나를 떠난 일을 너희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섬기는 일을 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원인을 헤아려 보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를 창조했다는 설명에 만족하지 말라. 내가 인간을 창조할 때 동시에 그 인간을 위해 혼을 창조했

고 설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대변하고 그들은 이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력이 있는 혼을 불어넣으셨다." 라는 말씀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생명력 있는 혼이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이라는 지식이 그들에게 부족하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의 이 땅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기 원한다면, 모든 각각의 사람이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잘못 된 가르침조차도 사람이 해명을 얻으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사람이 질문하게 만들 수 있다. 특별히 사람들을 위한 인도자가 돼야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미리 스스로 설명을 얻어야만 한다. 그들이 단지 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모든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들 안에 작은 의심이 떠오르는 느끼고 이런 느낌이 그들이 가장 순수한 진리가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쾌활하게 해줄 올바른 원천으로 가게 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런 설명을 받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너무 많은 어두움이 있고 잘못 된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게 되는 일은 단지 사람들의 진리를 향한 미지근함 때문이다. 왜냐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가 단지 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가장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친다. 왜냐면 영원한 빛 자신이 어두움을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아멘

아담. 원래 초기의 영. 루시퍼의 시도. 형체를 파괴한 일.

B.D. No. 5802

1953년 11월 9일

진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든 어두움을 벗어나고, 모든 설명을 받고, 모든 일의 연관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길이 위로 향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진리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오류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먼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해야 하고, 이제 외부에서 오거나, 생각의 형태로 내부에서 그에게 주어진 지식에 심장을 여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심장이 자원하여 진리와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역사해야만 인간은 진리를 얻어야만 하게 된다. 완전히 수동적이고 스스로 원하지 않고, 진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를 그냥 전해 줄 수 없다. 왜냐면 그런 사람은 영의 어두움 속에 머물 것이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위로 향하는 길이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재물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받아드리는 사람을 찾고, 모든 사람의 의지가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이 재물을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진리를 향한 갈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대낮처럼 선명하고, 그에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 그에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그가 단지 진리의 근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의심과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

제시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심장을 통해 그에게 응답할 것을 기다리면, 그의 요청대로 설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향한 갈망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과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그에게 선명하고 진리에 합당한 대답을 보장한다. 만약 너희가 단지 설명을 원하고, 진리 자체이고 또한 이 땅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위를 향한 길을 위해 빛을 주기 위해 진리를 전해주기 원하는 분에게 모든 질문을 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53년 11월 6일) 최초의 창조된 인간의 육체는 내 사랑의 창조역사였다. 내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깊은 곳에서 성장을 이뤄 완전하게 자유한 가운데 의지의 마지막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을 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곁형체를 만들어 줘야만 했다. 끝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한때 분해되었던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일할 수 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한때 창조했던 모든 원래의 영들을 위해 내가 형체를 창조해야만 했다. 이런 원래의 영들을 위해 곁형체를 창조하는 일은 단지 그 전에 창조했던 수많은 창조물을 창조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창조물은 외부로 드러난 내 생각이었고, 내 의지에 의해 이미 창조되어 내 앞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창조된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단지 내 사랑의 힘을 흘려주어 채워주는 일을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원래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은 나에게서 나온 사랑의 힘이 있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되기 위해 단지 곁형체를 소유하면 되었고, 영적인 존재는 완성에도달하기 직전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종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남아 있는 죄짐이 그에게서 온전한 지식을 빼앗았고,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가르침과 계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존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 서서히 깨달음이 성숙하게 되어 했기 때문이다.

큰 영적인 싸움이 먼저 일어났다. 왜냐면 내가 만든 첫 번째 형체 안에 머물기 원하는 타락한 원래의 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사람의 형체 안에서 나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사용 가능한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을 치르는 삶을 통해 무한하게 풍부한 힘과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최초의 인간 안에 거할 원래의 영을 스스로 정했다.

(1953년 11월 7일)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누구의 나를 향한 저항이 줄어들어 마지막 이 땅의 삶의 시험을 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의 의지가 내 대적자의 세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를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한때 영들이 타락했을 때 지도자였던 원래의 영을 택했다. 그러므로 그의 죄짐이 그에게 더 무거웠지만, 내 사랑은 그를 되찾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왜냐면 수많은 존재들이 그를 뒤따랐을 것이고 구원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영의 실패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의 단계에서 그의 의지가 바뀌어 가장 강한 영이었고, 따라서 그는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그러므로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가장 큰 전망을 제공했다.

이 원래의 영이 형체를 입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의 형체를 루시퍼도 볼 수 있었고, 루시퍼는 이 형체가 그의 나라인 어두움의 나라에서 내 나라인 빛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루시퍼는 또한 자신이 추종자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 기간

동안에 영적인 존재가 나를 떠나게 하고, 시험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창조한 형체는 루시퍼가 자신의 영이 형체 안에서 거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 형체를 입었을 때 아직 생명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속박을 받지 않은 그의 영이 형체를 파괴했고, 그는 이 형체 안에 거하는 모든 영도 형체를 파괴할 것이고, 그에게는 절대로 손실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나는 그런 시도를 허용했고 이제 그의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했다. 왜냐면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어야 할 영적인 존재가 창조물 안의 오랜 성장과정으로 인해 더 이상 루시퍼와 같은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존재가 자원하여 마지막 곁형체를 입었고, 이런 원래의 영은 원래의 상태에 가까웠고, 곁형체가 그에게 타락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사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창조물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에게 제공되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주인으로서 명할 수 있었고, 그에게 권세와 힘이 충만했고, 단지 내 권세 아래 있었고, 내 권세가 그에게 단지 쉬운 계명을 주었고, 이 계명을 지키면, 아직 그에게 부여된 속박을 벗어날 수 있었다.

루시퍼가 이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자신이 첫 사람의 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체를 속박으로 묘사하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계명을 어기는 일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이로써 원래의 영이 내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내적으로 다시 나를 반역하게 하면서 형체를 견딜 수 없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일은 의식적으로 오류로 인도하는 일이었고, 첫번째 사람이 내가 준 쉬운 계명을 단지 지켰다면, 이런 오류에 저항할 수 있었다. 내 대적자가 그 안에 불순한 욕망을 타오르게 할 때까지 그가 진실로 자신을 축복되게 했던 권세와 힘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했다면, 첫번째 사람이 이런 오류에 저항할 수 있었다. 불순한 욕망은 그가 자신 위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그가 알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분이 준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보다 더 크게 되려는 욕망이었다.

그러므로 첫번째 인간의 타락은 원래의 영이 처음으로 타락한 일의 반복이었다. 그는 루시퍼를 따랐고,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그와 함께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의지의 힘을 구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강한 의지로 루시퍼의 유혹에 저항하고, 그를 정복하기까지, 첫 사람의 모든 후손들이 죄악된 사람의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1953년 11월 8일) 최초의 피조물인 루시퍼가 자신과 함께 타락한 영들의 세계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그가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도록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자신이 첫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물질의 과정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지 않았다. 그는 존재하는 영으로서 의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대항하는 대적자였고, 비록 그가 이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로 구성된 피조물들의 주인이라고 느꼈다.

그 안에 아직 중단되지 않는 저항이 있었고, 그는 어떤 강요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내 의지가 창조한 형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영적인 존재를 위한 모든 형체인 모든 창조물을 미워하고, 창조물을 파괴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창조물에 대한 권세를 빼앗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위하거나 또는 그를

위해 다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때,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받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형체를 파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최초의 인간의 형체를 미리 조사했다. 왜냐면 그가 영적인 존재에게 내가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에게서 빼앗은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목표가 걸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어야 할 원래의 영이 스스로 걸 형체를 파괴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을 막기를 원했다.

나와 그 사이의 대적하는 관계는 그의 타락 후에 생겼고, 그 자신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상태를 깨닫고 (1953년 11월 9일) 힘의 공급을 요구할 때까지 절대로 대적하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최초의 인간의 형체를 부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반면에 의무의 상태에서 창조물의 과정을 통과한 영적인 존재가 이미 이전의 나에 대한 저항을 줄였고, 단지 나를 향한 저항과 내 사랑의 힘에 대한 저항의 포기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영적인 존재가 이미 그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를 알았고, 그는 또한 영적인 존재를 이제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초의 사람 안으로 들어간 원래의 영이 한때 그의 강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루시퍼는 특히 그의 타락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물질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원래의 영의 갈망을 알았다.

나는 이제 이런 원래의 영에게 두번째 존재를 주었고, 두번째 존재가 원래의 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의 의지의 시험을 돕게 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 것이고, 나는 한 존재에게 유일하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고, 두 존재에게 계명을 주었고, 둘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루시퍼는 이 두 번째 존재의 약해진 의지를 깨닫고 두 번째 존재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두 번째 존재를 활용했다.

첫 인간의 부부에게 의지의 시험을 요구해야만 했고, 시험을 위해 대적자의 세력도 역사할 수 있어야만 했다. 왜냐면 루시퍼도 자신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록 내 피조물이지만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러나 내가 수많은 존재들에게 앞으로 이 땅의 인간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 다시 말해 첫 인간의 부부가 타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빛의 나라가 닫혀 있을지라도, 그들이 더 높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첫번째 죄를 통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이 연기되었지만 취소되지 않았다. 왜냐면 첫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일을 인간 예수가 성취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 대적자보다 강했다. 왜냐면 그가 내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통해 나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첫번째 사람이 성취시키지 못한 계명을 자원하여 성취시켰다. 그는 내 의지에 완전히 복종했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헌신을 증명했다. 그는 원래 초기의 죄와 최초의 사람들에게 의해 반복된 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죄짐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해 희생을 치렀고, 내가 이 희생에 만족했고, 영의 나라의 문과 나에게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었고, 그를 내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멘

너희는 항상 내 영에 의해 올바른 인도를 받을 것이고 생각을 통해 진리로 인도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고 너희가 영을 통해 나 자신에 의해 가르침 받기 원하면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내 영은 내 일부이고 너희가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안다.

원래 초기에는 단지 가장 온전한 영들이 있었다. 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영이 그들 모두를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 창조했고 이런 사랑의 영이 동일한 응답하는 사랑을 갈망했고 자신과 같은 존재를 갈망했고 이런 갈망이 창조 활동을 시작하게 했다. 이로써 나에 의해 가장 첫 번째 존재가 생성되었고 나는 이제 모든 창조하는 축복을 그와 나누기를 원했다. 왜냐면 온전한 존재가 창조에 반영된 모든 영광과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을 통해 모든 영광 가운데 항상 바로 이런 창조하는 일이 불러일으키는 사랑의 충동을 따라 동일한 존재를 항상 또 다시 창조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온전한 존재에게 아주 축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인 빛의 전달자 루시퍼도 같은 방식으로 창조하는 기쁨을 체험했고 이런 체험이 헤아릴 수 없게 축복되게 했다.

나는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그는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으로 나에게 헌신했다. 나는 그의 창조하는 권세에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를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그 의지도 또한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전적으로 일치했다. 왜냐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최고의 수준으로 빛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연결로부터 오직 같은 유형의 초고로 온전한 존재들이 생성될 수 있었다. 원래 초기에 처음 창조된 영이 나 자신의 참된 형상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은 진실로 나 자신의 참된 형상이었다.

그의 의지가 나뉘지기 시작하고 능력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한 루시퍼가 자신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의 사랑이 때때로 약해지고 어떤 자기 사랑이 솟구쳤을 때 때때로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광채가 약해졌다. 이런 일이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존재들은 그의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을지라도 내 힘의 발산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들은 또한 여전히 최고로 온전하게 생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다. 왜냐면 그들의 의지는 완전히 자유롭고 우리 둘의 의지와 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의 의지가 완전히 자유롭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닮은 성품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원래의 입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신적인 성품을 가졌고 온전했다. 왜냐면 나와 내 힘에 의해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온전한 존재에게 속하고 자유의지는 모든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존재들이 그들의 창조자의 성품을 따라야만 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창조하는 일에 항상 참여했던 내 힘이 항상 창조자의 의지를 통해 최초의 피조물 후에 차원이 낮은 어떤 존재도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자유의지가 모든 존재에게 주어졌고 존재의 자유의지는 언젠가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의해 처음으로 생성되었던 존재들의 빛의 강렬함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인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일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이 마찬가지로 빛의 전달자 자신인 루시퍼처럼 그들의 의지를 잘못 사용했다. 아주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진 루시퍼는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타락은 최초의 존재들의 타락보다 더욱 정죄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중에 창조된 존재들은 견뎌내고 자기 결정권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인을 정할 때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타락한 원래의 영이 아담이었고 그의 혼의 성숙으로 인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숙이 그를 반복되는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자유의지로 다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했던 일이 그의 원죄였고 그는 낙원에서 새로운 죄를 졌다.

나는 자녀들이 나를 그들의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들을 얻기를 원했고 나는 자녀들의 사랑을 갈망했다. 왜냐하면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응답하는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 내 모든 창조물을 생성되게 한 원인이었고 모든 원래의 영들의 창조와 또한 나중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창조의 원인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영원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런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사람들이 내 사랑의 위대함과 깊이를 이해하게 해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사랑이 되고 너희 자신을 형성하여 내 사랑의 힘이 원래 초기처럼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너희는 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 심장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성취시켜주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빛을 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유일하게 빛이 축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빛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비록 너희가 내 사랑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내 모든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에 대한 증거를 준다.

아멘

누가 아담 안에서 육신을 입었는가? 2.

B.D. No. 7465

1959년 11월 28일

세 상적이건 영적이건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위험 가운데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원해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기 원한다. 영원한 내 영이 나로 하여금 창조하게 했다.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내 지혜는 능가 당할 수 없고 내 능력은 끝이 없다.

사랑은 진정 능력이었다. 사랑은 자신을 나타내길 원했다. 사랑은 나 자신이 창조물로 인해 넘치게 축복을 누렸던 창조물을 창조하길 원했다. 자신은 선물해줄 수 없었던 내 사랑이 그 안으로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릇을 구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스스로 그릇을 했

다. 왜냐면 나 외에는 내 강력한 사랑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이런 그릇을 내 형상으로써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를 생성했다. 존재는 이제 나 자신처럼 같은 창조자의 영과 창조자의 의지로 충만해 있었고 다르게 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존재가 창조하는 일이 주는 같은 축복을 느끼길 원했다.

그러므로 우리 둘의 사랑의 힘과 의지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 생성되어 나오게 되었다. 창조자의 역사를 너희 사람들에게 암시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깊이로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능력과 그의 의지로 창조된 내 피조물들과 단지 내 사랑 혼자서 내 밖으로 생성되어 나오게 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와 구별해야만 한다.

이런 존재인 루시퍼는 그가 타락하기까지는 나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권리가 있었다. 나는 존재를 내 곁에 두었고 그에게 단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내가 존재를 내 능력으로 창조한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존재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존재는 내 능력으로 전적으로 충만해 있었고 단지 이런 내 능력을 제공 받는 것에만 의존되어있는 진정한 내 형상으로써 내 곁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진 의지와 항상 똑같이 깊은 사랑을 가진 동안에는 이런 의존성을 절대로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내 요구를 성취하지 않았다. 존재는 나를 힘의 원천으로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했다. 존재는 우리 둘의 사랑과 능력과 의지로 창조했던 큰 무리의 추종자들을 함께 데리고 타락했다.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택한 길은 그에게 전적으로 자유롭게 놓여져 있었다.

그에 의해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존재들의 길은 내 뜻 아래 있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런 타락한 존재에게 존재가 다시 그의 영원한 출처요, 그의 창조자인 나에게 돌아 올 수 있고 돌아 오게될 길을 준비했다. 내 지혜가 성공을 주는 것으로 깨달은 같은 길을 루시퍼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한때 전적으로 자유한 존재로 창조했다. 전적으로 자유한 존재로써 그는 자유의지로 귀환의 길에 들어서야만 한다. 그는 내 형상이었다. 비록 그가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의 의지를 존중했다. 나는 그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귀환하는 길로 들어서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만약에 아담 안에 루시퍼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면, 이는 모든 타락한 존재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루시퍼의 것을 의미한다. 그의 루시퍼의 영은 다시 말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거쳐야만 한다.

이처럼 아담도 다시 말해 아담 안에 육신을 입은 원래 영도 바로 이런 루시퍼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그가 인간으로써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나에게

게 전적으로 모두 향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루시퍼의 충동과 성향을 가지고 인간 안에 육신을 입어야 한다.

루시퍼도 물질을 거치는 과정을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했다. 만약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적인 형체가 그에게 준비되었다면, 그가 실험적으로 첫 번째 형체를 입었을 때 일어났던 것 처럼(번역자 주, 야곱 로버 참조) 그의 아직 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영이 모든 형체를 해체시켜 버렸을 것이다.

이 형체는 단지 부드럽고 유연한 물질로 되어 있어 내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의 제어할 수 없는 영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반면에 아담의 원래의 영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가 형체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편안하게 느끼고 거의 목표에 도달한 타락한 형체들을 자신을 위해 다시 얻기 위한 루시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루시퍼는 내 대적자였다. 그는 아직 내 대적자이고 그가 함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마지막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귀환하는 길을 열어 설 때까지 내 대적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자유의지로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영원한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인간인가?

B.D. No. 8236

1962년 8월 10일

이 땅에 모든 곳에 인류가 어떻게 거주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너희 안에 떠오를 것이다.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다. 왜냐면 첫 번째 원래의 영인 아담이 육신을 입었을 때 육신을 입은 원래의 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모든 원래 영들은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하기를 인간 안에서 육신을 입기를 원했고 그들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의식적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기를 원하는 원래의 형들에게 인간의 겉형체를 주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했다. 왜냐면 창조하는 일은 내 생각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숙에 도달한 모든 원래의 영들은 자신의 겉 형태를 갖게 되었다. 모든 형체들은 내 뜻에 따라 자연적으로 항상 또 다시 서서히 성장의 도달한 혼들에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번식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 나는 선조들이 사는 지역을 제한했다.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준비된 땅으로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제 시험을 치러야 했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연약하게 되었고 내 신적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나를 대적하는 영인 루시퍼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원래 영 안에 깨어나게 되었고 순수한 신적인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원죄가 이런 사람들 안에서 다시 반복되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모든 사람에게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유혹하는 일에 성공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곳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고 인류의 조상으로 남았다. 그의 종족의 번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의 종족은 이런 문제 때

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어 진다. 아담은 루시퍼 이후에 첫 번째로 타락한 원래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게 되었다. 그는 내 쉬운 계명을 성취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아주 빠르게 자신의 형제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원래의 영들도 빠르게 그들의 저항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조건이 없이 나에게 헌신하였을 것이고 나에게 귀환은 그들에게 보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새롭게 나를 대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거절하는 첫 번째 죄를 다시 반복한 것이다. 루시퍼는 아담의 타락을 통해 다시 권세를 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모든 인류를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아담과 같은 연약함 가운데 저항을 하지 않고 연약하게 남은 모든 인류에게 활용했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살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성숙해진 많은 원래의 영들이 그들의 마지막 육신을 이 땅에서 입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원래 영들 각자는 인간 안에서 마지막으로 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숫자는 아주 많았다. 모두가 자신을 따르던, 항상 또 다시 자신에게 속하게 된 원래의 영들인 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을 위해 그들의 특질에 알맞게 내가 이 땅에 삶의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즉 모든 원래의 영들에게 인간의 외적인 형체를 창조했고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번식하는 방식은 모든 곳에서 똑 같았다. 이를 위해 내가 원래의 영에게 두 번째 영이 함께하게 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했던 일이 각각의 종족이 서로 도달할 수 없었던 각 지역에서 항상 또 다시 반복되었다. 내 이 땅의 창조는 모든 곳에서 성장 과정이 요구되는 내가 선행조건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게 되는 아주 광범위한 일이었다.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서로 다른 종족들의 서로 간에 만남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성장은 모든 사람이 성취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두가 만약에 그들의 저항을 줄인다면, 다시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면,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사람들을 통해 또는 내 영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들은 이런 지식을 쉽게 영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인류에 속할 것이다. 만약에 혼들이 원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유를 내 대적자로부터 구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영접하면, 혼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아멘

너희가 위로부터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내용을 전하면, 너희는 전적으로 내 뜻대로 제대로 행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잘못 된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한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올바른 설명이 받아들일 수 없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가 종말의 때이다. 한 구원시대의 초기에 첫 사람이 이 땅을 점유하고 거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증거를 줄 수 있기에는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간격이 너무 크다.

그러나 첫 사람 자신에게도 올바른 깨달음이 없었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시험에 합격했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원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어두운 영으로 있었고 영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연관관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루시퍼의 유혹을 통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받은 순수한 사랑의 불씨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항상 더욱 추락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불신 가운데 죄악이 증가함으로 타락하는 일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들은 연관 관계를 알지 못했고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았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비록 항상 반복해 빛의 존재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에는 제한이 있었고 제한 된 지식이 계속해 전파가 되었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 가운데 내 행함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선행조건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제한 된 생각으로는 내 권세와 지혜와 내 사랑으로 창조된 넓은 창조공간과 연관된 이 땅의 존재들인 이런 창조의 역사인 이 땅에서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해 나에게 귀환을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생명을 항상 계속하여 유지하게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 관점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단지 그들 스스로 관장하고 있는 제한된 영역에 관해서만 알려 주었다. 조상인 아담과 에바 이후 이 땅의 발전과정에 관해 알려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른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들 중 일부는 큰 바다에 의해 분리가 되어 있어 그들의 나라가 자기 자신의 세계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한때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해 사람 안에 육신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출처에 관해서 자신의 생성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땅의 과제를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를 부르며 선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서 그들의 이 땅의 과제로 삼았다.

그들이 자신 안에 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면, 그들의 생각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민족들이 서로 다른 영적인 방향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파해야만 한다.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방향과 종교들이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지만 모든 종교 안의 사랑의 가르침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성장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자신 안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들 간에 서로 접촉을 하게 되는 일은 항상 더욱 많아지게 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헌신해 나와의 연합을 이루고 나에게 귀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제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보장을 받게 될 것이고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이 자신의 목표를 도달해 다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될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가?

B.D. No. 9006

1965년 7월 2일

순 순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지게 되면, 너희의 모든 질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순수한 진리는 단지 너희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어 되면, 아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밝은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로부터 타락이 일어났음을 안다.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타락에 대해 같은 책임이 있다. 그들이 대적자의 의지 아래 있으면서 나를 거역하게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개인적인 일이었다. 죄를 짓게 한 것은 대적자에 빠지기 전의 타락할 당시의 자유의지였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의식적으로 대적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적자는 자신의 추종자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타락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창조물을 창조함으로써 권세를 그로부터 빼앗았다. 대적자는 자신의 추종자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다. 존재들이 인간으로서 자기의식을 다시 얻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권한을 줘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도 이런 존재들을 유혹할 수 있었고 그는 모든 권모와 술수로 유혹했다.

그는 첫 사람에게서 만약에 그가 내 가벼운 계명에 순종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내 말에 대한 믿음을 빼앗는 것을 이해했다. 이 첫 사람 안에 아주 강한 영이 육신을 입고 있었다. 대적자는 쉽게 다시 그가 타락하게 하는 일에 도달했다. 하물며 어떤 영도 내 대적자의 같은 유혹의 술수에 빠졌다면, 대적자에게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이 있느냐? 후손들이 첫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유혹에 대항했다면, 내가 나중에 인간 예수가 했던 것처럼 공홀로 인해 똑 같이 행했을 것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첫 사람이 사랑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헌신하면서 내 비추임을 다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첫 사람의 저항하려는 능력에 만족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첫 사람의 사랑의 의지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해주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인간으로 사는 삶의 길은 단지 나를 향한 사랑을 최고로 불타오르게 하는 역할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첫 사람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증명했고 그의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자신의 유혹하는 술수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존재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에 나는 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선조들의 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유혹에 대항할 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들은 나로부터 대항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의지를 내가 축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대적자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첫 사람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쉽게 가게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한 대적자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움을 구했으면 내가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빛의 세계로부터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었던, 내 대적자가 이들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없었던 모든 원래의 영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쉬운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과 내 대적자의 유혹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대적자가 그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지신 못했다는 것들은 내가 모든 혼들을 도왔다는 그리고 계속 도울 것이라는 증거이다. 그들의 의지는 이미 나에게 복종하여 이들은 적은 죄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그들의 귀환의 길을 완주하게 하기 위해 은혜와 능력으로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게 혼들을 돌보아 준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나는 첫 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자였던 한때 타락했던 영을 대적을 하며 내 쉬운 계명을 지켰더라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내 말을 더 믿었더라면, 그의 저항으로 대적자의 권세를 부수고 이 승리가 모든 타락한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었을 것이 때문에 대적자는 더 이상 자기 추종자에게 역사할 수 없을 것이고 쉽게 갈 수 있었던 귀환의 길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야만 한다.

아멘

질문: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B.D. No. 8675

1963년 11월 16일

나는 너희가 질문하기를 원한다. 이로써 내가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를 가르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내가 또한 이런 질문을 너희 심장 안에 넣어 준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직 부족한 곳을 알고 너희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내가 내 사랑의 빛으로 너희를 완전히 충만하게 해줄 수 있고 이로써 너희가 또한 가장 밝은 깨달음을 보장해주는 온전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연관 관계의 작은 세부 사항까지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전에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

라 설명해줄 수 있고 이로써 너희가 잘못 된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게 하고 잘못 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한다.

나를 떠나 타락한 존재들의 죄는 헤아릴 수 없게 컸다. 그러나 이 죄는 주로 그들을 한때 생성되게 한 나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준 그들의 빛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더 나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항해 죄를 지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아주 커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대항해 범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존재들의 타락을 통해 존재들을 사로잡았고 존재들이 내 대적자의 권력에서 벗어나기에 너무 연약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야만 한다. 사랑이 단지 존재들을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힘을 줄 수 있었고 사랑이 유일하게 대적자가 무기력하게 되는 대상이었고 사랑이 단지 대적자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존재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사랑을 포기했고 그들은 내 사랑의 발산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대적자에게 전적으로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다시 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갖추어 주었고 그들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고 그들은 단지 어렵지 않은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응답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가 짧은 시간 내에 전적으로 후회하는 가운데 나에게 돌아 왔을 것이고 아담이 자신의 올바른 사랑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힘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한때 타락한 존재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영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왜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그들의 큰 원죄를 깨닫고 나를 향한 긴밀한 사랑으로 곧 원죄를 해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에 대항한 죄와 나 자신을 대항한 죄는 단지 사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선물해준 것이 그들의 사랑이 가장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게 했어야만 했다. 왜냐면 나는 속죄로 단지 사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과 인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큰 죄를 해결할 정도로 사랑을 드렸다.

오직 사랑이 죄를 속죄할 수 있고 최초의 사람들이 진실로 이런 사랑을 드릴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을 둘러싼 피조물이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제공했고 그들이 고통이 가득한 묶임을 받은 상태를 보낸 후에 이런 영광을 축복으로 느꼈고 이런 축복이 그들 안에 그들이 항상 단지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고 나에게 긴밀하게 헌신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잘못 사용했던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나는 내 대적자에게 그의 추종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그들을 얻기 위해 싸울 권리를 부여해야만 했다. 나를 대항하는 새로운 죄의 큰 위험성을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단지 쉬운 계명을 주었다.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장하고 대적자의 그에 대한 권세를 완전히 빼앗았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고 또한 성취시켜야만 했다.

그도 또한 첫 번째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일을 시도했고 그가 내 대적자였기 때문에 그는 내가 준 쉬운 계명에 자신의 거짓 약속으로 대항했고 사람들을 잘못 된 사랑으로 이끌었다. 그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고 그들이 내 계명을 어긴다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한 나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일이 새로운 큰 죄였고 모든 후손들을 연약한 상태에 빠뜨려, 후손들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게 했고 가장 깊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필요하게 했다.

내가 항상 또 다시 오직 사랑이 큰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는 아담이 실제 나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가능했고 그러나 그의 타락을 통해 그의 타락 후에 더 이상 어떤 존재도 큰 원죄의 해결을 보장하는 사랑을 모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구원하는 사랑의 역사가 인간 예수 안에서 나를 나타낸 나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한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는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이런 구속역사가 없었다면 아무도 나에게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내 대적자가 어떤 혼도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혼 자신이 내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고 내가 또한 첫 번째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영원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런 구속역사를 위해 자신을 제공했고 구속역사를 실행했다. 왜냐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모든 불행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원죄. 아담의 타락. 구원 역사.

B.D. No. 6973

1957년 11월 20일

우주에 창조물이 생성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구원의 역사는 형태로 굳어진 영적인 존재를 형체 안으로 묶는 일로 시작되었다. 즉 물질적 형태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물질적 형태 자체는 초기에는 그의 실체가 영적인 입자였고 물질적 형태 안에 이미 특정한 성장과정을 거친 영적인 입자가 거한다.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힘이 더 이상 영적인 존재에게 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굳어져 자신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소유였고 절대로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굳어진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이전에 가졌던 축복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의 자녀로 형성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일은 피조물 자신이 성취해야만 하는 일이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끝없이 타락한 피조물이 다시 성숙하여 이제 전적인 자유의지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왜냐면 피조물 자신에게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생성되게 해서 도움을 주었다. 즉 하나님은 굳어진 영적 입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창조물들로 형성되게 해서 타락한 존재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런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시작되었다.

타락한 존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장받게 되었다. 왜냐면 이런 창조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인간이 쉬운 하나님의 계명대로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유혹에 저항했다면, 인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이 보장되었을 것이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대적자가 자신을 속이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고 이로써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역사를 그들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의 힘은 첫번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이제 현저하게 약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첫번째 사람들이 가졌던 힘이 없었고 동시에 첫번째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졌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큰 일을 이뤘다.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들인 사람들이 언젠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일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즉 가장 높은 빛의 존재가 인간으로서 최초의 인간들이 성취시키지 못한 채 남겨두어 그들을 파멸되게 만든 조건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기를 원했고 그들이 다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했다. 인간 예수 안에 신적인 사랑 자신이 거했고 자신의 자녀들이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원하는 아버지가 거했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의 아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창조의 힘에서 생성되었고 인간의 겉형체를 취해야만 했다. 이로써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위한 그릇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이런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시 결정적이다.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최고의 온전함과 최고로 행복하고 축복 된 상태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구원의 도움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자신의 대적자요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의 도움을 청하기만 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항상 모든 존재를 깊은 곳의 죽음의 상태에 묶어두려고 노력한다. 구원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의미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영접하는 일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해결이 된 원죄와 인간의 조상의 죄로 인해 연약해졌기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영의 상태. 책 중의 책.

B.D. No. 8397

1963년 1월 30일

왜 책 중의 책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영원한 내 구원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는지 너희는 질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계획에 관해 자세한 깨달음을 주는 계시를 의심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려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이런 지식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였다는 것을 내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빛을 허용하지 않고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 안에서 빛을 밝혔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을 깊게 만들려는 내 대적자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연관 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한 깨달음이 없었다. 그들은 실제로 내가 가르치게 이 땅에 보낸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준 내 계명을 순종하기를 요구함을 알았다.

그들이 내 계명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작은 깨달음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숨겨져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학교 교육을 통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절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성이 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한 원죄로 인해 높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의 말도 거부하려는 자세로 들었다. 왜냐면 그들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의 삶의 쾌락에 제한을 가해야만 했었고 때문이다.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단지 예외적이었다.

개개인의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지식이 주어졌고 기록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내 대적자가 항상 더욱 강하게 사람들에게 역사 했기 때문에 전승되지 못했고 내가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지식을 영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이런 특별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단지 대적자가 자신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시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살려는 소원이 있는 곳에서만 단지 내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작은 빛을 선사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런 가르침은 단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각 사람의 성장 정도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화가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통해 빛을 밝히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게 남았을 학교 지식이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제 내 구속사역을 통해 원죄가 사해졌다. 이제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 영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혼에 작업을 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영에 의해 너희에게 제공이 될 것이다. 깊은 지혜 안으로 들어 가려는 깊은 소원을 가진 사람의 소원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그들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영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통적으로 전달 된 지식을 통해 그들은 단지 혼돈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이 내 영에 의해 기록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내 구원계획을 진지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양육을 위해 전달 된 영적인 내용으로 만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연관 관계를 선명하게 설명하면, 이 지식이 그들에게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 지식은 바로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깨어난 영이 필요한 깊은 영적인 원인에 관한 아주 깊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되어 양심의 소리인 내적인 음성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 그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내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을 따르는 것을 요구받는 진지하게 깨달음을 추구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내 대적자는 항상 어두움을 전하려고 하고 모든 빛에 대항해 싸우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 스스로 모든 내적으로 밝아지게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그는 진리를 왜곡시켜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내 창조 계획에까지 미치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깨어난 영이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에 책 중의 책의 내용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단지 심장 안에서 받아들인다면 사람 혼의 성장을 위해 실제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이 문자를 깨어난 영으로 사람들이 있지 않는 한 문자는 죽은 상태로 남기 때문이다.

계시를 통해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주어지는 순수한 진리인 모든 지식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항상 그의 영이 깨어나서 자원해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가장 깊은 비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내 구원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